

# KIA 1위 질주... 100만 관중 성큼성큼



KIA의 거침없는 1위 질주에 홈 54경기 만인 지난 15일 누적 관중 77만3499명을 돌파하며 역대 타이거즈 최다관중 신기록을 달성했다. 15일 현재 평균관중 1만4372명을 기록하고 있는 KIA는 첫 100만 관중 돌파까지 노리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54번째 홈경기만에 누적 관중 77만6103명 '신기록' 잔여 경기 18... 평균 1만4372명 방문팬 무난히 달성

‘동행’으로 최다 관중 기록을 이룬 ‘호랑이 군단’이 100만 목표로 향해 간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1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 경기에서 타이거즈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갈아치웠다.

올 시즌 54번째 홈경기가 열렸던 이날 경기장을 찾은 이는 1만6545명으로 누적 관중이 77만6103명이 됐다. 지난해 달성된 역대 최다 관중인 77만3499명을 넘어선 새로운 기록이다.

지난해 54경기에서 63만5564명이 입장한 것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 14만539명(22.1%)이 증가한 수치다.

KIA는 타이거즈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이 세워진 15일 양현종의 7이닝 1실점의 호투와 주장 김주찬의 홈런포 등을 앞세워 4-2 승리를 거두며 팬들의 성원에 화답했다.

16일 경기에 앞서 김기태 감독은 “정말 팬들 대단하다. 야구도 야구지만 구단의 외적인 서비스 부분, 팬들에 대한 예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뤄진 기록이다. 경기장 안내하고, 경호하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모두 잘해주셨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싶

다”면서 선수단, 구단 관계자들 그리고 팬들과의 ‘동행’이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KIA는 2014년 새 홈구장인 챔피언스필드를 사용하면서 해마다 관중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구단도 ‘록 앤드 필 프로젝트’ 등으로 구장 시설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며 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리미엄 좌석 확대, 구장 내 어린이 놀이터 개설 등으로 팬 서비스를 강화한 KIA는 올 시즌에도 내야 그물망 기둥 20개 가운데 14개를 제거하고 메이저리그에서 사용하는 그물망으로 교체해 관람 환경을 개선했고, 푸드 코트를 새로 꾸미고 먹거리를 다양화했다.

지역 기관과 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네이밍 데이 마케팅 등도 관중 증가에 한몫했다.

최다 관중을 넘어선 KIA는 올 시즌 목표 관중에 이어 100만 관중을 향한 여정을 이어간다. 올 시즌 KIA가 내세운 목표 관중은 78만1200명. KIA는 16일 목표 관중을 일찌감치 달성하고 최다 관중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

최종 목표치는 100만이다. 인구 147만

의 광주에서 100만 관중을 채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수치상으로는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15일 현재 평균 관중은 1만4372명으로 단순 계산으로는 홈 72경기에 103만4784명이 입장하게 된다. 하지만 순위 싸움과 날씨라는 변수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목표이기도 하다.

최근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KIA의 1위 행진 속 팬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7월 22일에 올 시즌 9번째 매진 사례가 기록되는 등 날씨도 팬들을 막지 못하고 있다. 15일 출시된 ‘815 저지’도 당일 매진 사례를 이룰 정도로 팬들의 열기가 뜨겁다.

KIA도 내심 100만 관중 돌파를 기대하면서 이벤트 구상을 하고 있다. 100만 관중 돌파 시 지역민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열고, 파격적인 디자인의 ‘100만 유니폼’을 제작해 출시할 예정이다.

KIA가 2017년 가을 1위와 100만 관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흥겨운 잔치를 벌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급소 부위 맞은 양현종 “선수 생명이 문제가 아니라...” 김기태 감독 “‘100만’ 달성 때 큰 절은 너무 약한가?”

### 덕아웃 T 특독

#### ▲함부로 오지 않아요

16일 KIA와 NC의 경기장 열린 챔피언스필드에 반가운 얼굴이 찾았다. 은퇴 후 메이저리그 해설위원으로 변신한 ‘빅 초이’ 최희섭이 올 시즌 처음 챔피언스필드를 방문했다.

방송 스케줄이 비어있는 데다 이날 광주일고 선배인 NC 이호준이 은퇴를 앞두고 광주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되면서 겸사겸사 경기장을 찾았다. 수도권 경기에는 몇 차례 방문하기도 했던 최희섭은 프런트 사이에서는 ‘승리 요정’으로 통한다.

최희섭은 “함부로 경기장을 찾지 않는다. 전력을 살펴보고, 선발이 헛타일 때 온다”는 농담을 했다. 최희섭은 후배들의 V11 도전에 대해서는 “잘해주고 있다. 어이없는 플레이, 경기만 나오지 않으면 된다. 좋은 결과 나올 것이다”며 친정팀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 ▲잡은 줄도 몰랐어요

본인이 잡고도 믿지 못한 호수비였다. 15일 6회 포수 한승택의 대타로 들어가 3루수로 된 최원준은 3-1로 앞서 7회초 1사 2루에서 스크러스의 벱락같은 타구를 낚아채며 실점 위기의 팀을 구했다.

최원준은 16일 “공이 보여서 뛰기는 했는데 공을 잡은 줄 몰랐다. 넘어져서 보니까 글러브에 공이 있었다”고 웃었다.

매서운 공격에 비해 수비의 견고함이 아쉽지만 매일 성장해가고 있는 최원준, 김기태 감독은 “많이 좋아졌다. 공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좋아지고 있다”고 최원준의 수비에 관해 이야기했다.

▲선수 생명이 문제가 아니라 양현종에게는 아찔했던 순간이었다. 양현종은 15일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개인 최다승 기록을 17승으로 늘렸다. 하지만 경기 중간에 인생의 큰 위기를 맞기도 했다. 6회 2사에서 박민우의 투수 앞 땅볼 때 급소 부위에 공을 맞았다. 바로 1루에 공을 던져 세 번째 아웃카운트는 잡아

냈지만 한동안 마운드에 주저앉아 있어야 했다.

양현종은 경기가 끝난 뒤 “이건 선수 생명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상이다”며 웃은 뒤 “보호대 덕분에 다행이었다. 별편은 해도 투수들이 보호대를 꼭 착용했으면 좋겠다”고 보호대 착용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 “다승왕에 욕심이 난다. 내가 많이 이기면 팀이 많이 이기는 것이다. 헛타와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큰절이라도 해야 하나 15일 KIA는 누적 관중 77만 6103명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기록된 역대 최다 관중 77만 3499명을 넘어섰다. 평균관중 1만4372명을 기록하면서 100만 관중까지 기대할 수 있는 수치. 김기태 감독은 16일 100만 관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굉장히 큰 영광일 것이다. 큰 절이라도 해야 하나?”라며 100만 관중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이어 “큰 절은 너무 약하나요?”라고 웃음을 터트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류현진 20일 ‘호랑이 굴’서 5승 재도전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원소 투수 류현진이 20일 오전 5시 5분(한국시간)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의 방문 경기에서 선발 등판한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16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홈경기를 앞두고 스포츠넷 LA 등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9일부터 열리는 디트로이트와의 방문 3연전 선발 투수 로테이션을 공개했다.

로버츠 감독은 리치 힐-류현진-마에다 겐타 순으로 선발을 예고했다.

지난 13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에서 패전을 면한 류현진은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일주일 만에 5승 재도전에 나선다.

류현진은 2013년 빅리그 진출 후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 딱 한 번 등판했다. 2014년 7월 9일 코메리카 파크에서 열린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2.1이닝 동안 안타 10개와 볼넷 2개를 묶어 7실점하고 패전 투수가 됐다.

허리 통증 재활 중인 에이스 클레이턴 커쇼의 선발진 복귀가 다가온 가운데 마에



다와 5선발 잔류를 놓고 경쟁 중인 류현진이 3년 만에 다시 서는 코메리카 파크 마운드에서 디트로이트 타선을 재물로 승수를 챙길지 주목된다.

시즌 4승 6패, 평균자책점 3.63을 올린 류현진은 올해 96.2이닝을 던졌다. 시즌 18번째 선발 등판인 디트로이트전에서 4회만 남기면 3년 만에 한 시즌 투구 이닝 100이닝을 돌파한다.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4위인 디트로이트는 리그 팀 득점 4위(569점), 장타율 6위(0.425)를 달리는 화력의 팀이다. 팀 평균자책점은 4.98로 리그 꼴찌다. /연합뉴스

## 美 지역지 “오승환 재계약, 관건은 몸값”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올 시즌이 끝난 뒤 FA(자유계약선수)로 풀리는 오승환(35)을 놓고 고민하는 모양새다.

세인트루이스 지역지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는 16일 “오승환의 잔류 여부 관건은 결국 몸값”이라며 “오승환은 두 번째 시즌 많은 것을 잃었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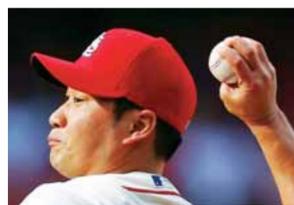
오승환은 2016년 세인트루이스와 ‘1+1년 최대 1100만 달러’에 계약했다.

첫 시즌에는 옵션을 모두 채웠고, 올 시즌도 옵션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여 2년간 연봉이 1100만 달러가 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지난해보다는 올 시즌 다소 부진하다.

지난해 오승환은 76경기에서 79.2이닝을 던져 6승 3패 14홀드 19세이브 평균자책점 1.92를 올렸다. 중간 계투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마무리를 켜졌다.

시즌 종료 뒤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는 ‘팀에서 가장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선수’로 오승환을 꼽았다. 올해 오승환은 마무리로 시즌을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는 중간 계투로 이동했다.

/연합뉴스



오승환은 15일까지 50경기에 등판해 1승 5패 18세이브 평균자책점 3.53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보다 피안타율이 2배 가까이 높다. 오승환은 지난해 0.190의 리그에서 두 손잡히는 피안타율을 보였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피안타율이 0.278로 치솟았다. 오승환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수다. 그러나 1년 사이 그를 향한 기대감이 낮아진 것도 사실이다.

올 시즌을 앞두고 현지 외신은 ‘오승환이 재계약 협상에 나서면 연평균 1000만 달러 수준의 논의가 있을 것’이란 예상도 했다.

/연합뉴스

## 양정훈 2년만에 국내 무대...9월 신한동해오픈 출전

유럽프로골프 투어에서 통산 3승을 거둔 양정훈(22)이 9월 제33회 신한동해오픈에 출전한다.

양정훈의 매니지먼트 회사인 스포츠인텔리전스그룹은 16일 “양정훈이 9월 14일 인천 벤투스베스트 청라에서 개막하는 신한동해오픈에 출전, 약 2년 만에 국내 팬들과 만난다”고 밝혔다.

2015년 SK텔레콤오픈과 한국오픈에서 모두 공동 3위에 오르며 선전한 양정

훈은 지난해 유럽 투어에서 2승을 거뒀고 올해도 1승을 추가하며 통산 3승을 달성했다.

양정훈은 “최근 월드골프챔피언십 브리짓스톤 인비테이셔널과 PGA 챔피언십 등 세계적인 큰 무대를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많이 얻었다”며 “처음 출전하는 신한동해오픈에서 국내 첫 우승을 이뤄내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연합뉴스

## 10월 5일 PGA 시즌 개막

### 19일 제주도서 CJ컵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17-2018 시즌이 10월 5일 개막한다.

PGA 투어는 16일(한국시간) 2017-2018시즌 가운데 2018년 1월 첫투까지 일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즌 개막전은 10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에서 열리는 세

이프웨이 오픈으로 정해졌다. 이어 10월 12일에는 장소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옮겨 CIMB 클래식이 나흘간 진행된다.

국내에서 열리는 사상 최초의 PGA 투어 정규대회인 CJ컵은 10월 19일부터 역시 나흘간 제주도 나인브릿지에서 펼쳐진다.

CJ컵 다음 주인 2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월드골프챔피언십(WGC) HSBC 챔피언스가 막을 올린다. /연합뉴스